



죽비와 목탁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공양주는 보살 아닌 머슴?

금요 화상은 30년 동안 매일 공양시간이 되면 직접 밥통을 들고 승당 앞에서 '보살들이여! 공양하러 오시오'라며 크게 웃고 춤을 추면서 선원의 식사작업의식을 무심의 경지에서 실행하기로 유명했다. 금요 화상은 마조도일 선사(1900~1970) 당대에 알아주는 선사였지만 문하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공양주를 자청했다. 사찰 후원에서 수행 3년이 선방 10년을 대신한다고도 말할 정도로 공양주 보살의 삶은 참수행의 현장이다. 그래서 신참 묵인 후원의 일을 때로는 조실스님이 자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공양주가 쉽사리 떠나는 것은 공양주 보살이 '보살'이 아니라 '머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기상해 1년 365일 삼시 세끼 수행을 해내야 한다. 매달 있는 초하루, 지장재일, 관음재일은 물론 안거기간 동안에는 스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봉양하고, 대중들의 공양까지 책임지고, 때로는 사찰의 행정업무까지 손이 안 가는 일이 없는 고된 일을 누가 쉽게 버티겠는가? 비정규직에 개인의 자유는 만무하고 적은 보시금이 보살의 전부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불법을 깨달도록 지극한 정성을 다하며 공양주 보살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요즘 전국 사찰에는 공양주 보살 인력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공양주 보살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든 일이고 그나마 고용된 이들도 한 두 달이면 말없이 사찰을 떠나버린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급기야 조선족 교포 등을 사찰 공양주로 채용하는데 이르렀다. 이는 스님 봉양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차이와 이들의 음식 맛이 한국과 달라 스님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은 물론 사찰 음식에도 변종이 생겨나고 있다.

공양주 외에도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곳은 무수히 많다. 승복 제작자, 법당 불사를 위한 목수, 불상 조성을 위한 조각가 등 승가 보조 인프라의 위기는 날이 가속화 되고 있다. 포교의 양적 팽창 외에 사각지대를 살피는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불자인력 풀 제도, 비전 전문가집단 확대 등 장단기 플랜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 포교의 일환이다. 공양주는 사찰전문요리사로, 승복 제작자는 전통의상 전문가 등으로 기피했던 불교계 사각지대의 업종들이 새 시대 황금알을 낳는 불교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날을 기대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淨)의 '현대불교'를 이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논산훈련소 연무사 중창 선포 자광 스님 취임 후 첫 군승의 날 "5만 군불자 양성"

"한국불교의 미래, 군포교"를 위해 '벽돌하나 쌓는다'는 마음의 발로가 절실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11월 18일 취임 이후 첫 '군승의 날'을 맞아 논산 육군훈련소의 중창불사와 연간 5만 명 이상 정예수 제불자 양성 등 군종교구 비전을 제시하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자광 스님은 "11월 27일 제41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중창불사를 선포 하고자 한다. 불자장병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벽돌 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후원에 달라"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스님은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1500명 규모로 각종 법회에 군장병들이 바깥에 서서 법회에 참가하는 실정이다. 5000명 규모인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시설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중창불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호국연무사 중창불사는 2014~15년 각 사단 보충대가 논산훈련소로 집중되는 국방개혁 2020계획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포교의 선결과제로 지목됐다. 호국연무사 중창 불사에 필요한 기금은 130억여 원으로 조계종 연간 예산의 절반에 달

하는 큰 액수다. 이에 군종교구는 총무원장 스님을 총재로, 자광 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불사모언에 나설 방침이다. '군승의 날'에는 사진전 및 불사홍보 행사가 전개되며, 후원약정 등도 진행된다.

스님은 "종단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이라며 "그러나 각 교구본사 회의에 군장병들이 바깥에 서서 법회에 참여하고 불사 동참의사를 밝히는 등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종교구 양대 과제인 5만 장병 정예불자화에 대해 "군포교는 군 장병들이 제대 후 신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수계와 동시에 지역사찰 연계 법회 등이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복합 포교전략을 전개할 것도 시사했다.



자광 스님.

이날 스님은 '군승의 날'을 맞아 후배 군승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스님은 "교구장 부임 후 여러 사 업과 행사 등으로 정작 군승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며 "군승 위상 강화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군포교는 여러 포교분야 중 가장 노력의 성과가 잘 드러나는 분야다. '문'이라는 불질을 떠나 불법홍포를 위한 '열정'과 '애정' 어린 도움이 필요할 때"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제2대 군종교구장이자 민선 1대 군종교구장이자 자광 스님은 30년 가까이 군승일선에서 활동해 온 군포교 역사의 산 증인이다. 1957년 화엄사로 입산해 1959년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중비생 1기 졸업 후 1970년 군승 중위로 입관해 반평생을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해 왔다. 스님은 1980년 군승단장으로 기독교 위주 예산 배정을 시정하고 1993년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군승법사 정원을 100여 명으로 증원하는 등 군포교 현장에서 다양한 공적을 쌓았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불교문화원장 혜오 스님 감사국장 법귀·사무국장 덕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원장에 혜오 스님을 임명했다. 또 기획실 감사국장 법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조 스님을 계사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혜오 스님에게 "전통불교문화원은 자체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사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혜오 스님은 1980년 청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원경 스님, 본사는 용주사다. 스님은 용주사 사회국장을 역임했으며, 가평 청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총무원 상임감찰과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종회의원과 부안 개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법귀 스님은 1989년 흥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석주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덕륜 스님이고, 본사는 범어사다. 부산 정광사 주지를 지낸 바 있다. 덕조 스님은 1990년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원경 스님, 본사는 용주사다. 스님은 용주사 사회국장을 역임했으며, 가평 청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계사에 보리수 심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33대 집행부 스님들은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보리수를 심으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사삼 이후 첫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를 조계사 부처님과 법전 중장스님에게 올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을 비롯하여 33대 신임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11월 14일 해인사를 찾아 중장 스님에게 집행부 출범 인사를 올렸다. 제33대 집행부의 첫 하례에서 법전 스님은 "모든 스님들이 힘을 합쳐 대화합으로 종단 발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26~27일

태고종은 11월 26~27일 전통문화진흥관에서 제6기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전법사는 수계산림 후 1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종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태고종은 비구, 비구니, 남·여 전법사(남·여, 우바새, 우바이)의 6부중으로 교단 구성이 돼 있으며 출가하지 않더라도 전법사 과정 후 수행도량에서 대승교화활동을 하는 교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태고종은 이에 앞선 25~26일, 흥본산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단 사미계를 받은 예비승려를 대상으로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집행부 '종도신뢰' 최우선 대변인 원담 스님 18일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조계종 대변인)이 33대 집행부가 '종도 신뢰'를 최우선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원담 스님은 11월 18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 역사 속에 종단이 종도들의 의심을 받거나 신뢰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며 "종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33대 집행부는 투명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은 이날 33대 총무원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해 공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종단중흥의 원력으로 의욕있게 각 부서별 사업보고를 받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연말까지 외부 언론과 접촉 등 대외 업무보다 기본업무 파악에 집중해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3일 기획실과 호법부 업무보고 및 2010년 주요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총무부, 불교문화사업단, 불교신문사, 아름다운동행 등 종단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중앙선관위 1월 8일 직능직 선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 인사가 완료된 가운데 종회의원 출신 스님들의 입각에 따른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1월 17일 제14대 중앙종회 직능직 및 직선직 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논의했다. 현재 제14대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행정), 교육원장 현웅 스님(선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문화)의 직능직 3석, 총무부장 영담 스님(상계사), 호법부장 덕문 스님(화

엄사), 재무부장 상운 스님(범어사)의 직선직 3석이 입각으로 공석인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직능직 3석은 전임 의원인 자승 스님, 현웅 스님, 원담 스님의 증명으로 1월 8일 보궐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어사는 12월 24일, 상계사와 화엄사는 1월 8일경 교구총회를 열고 직선직 의원을 각각 보궐 선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노덕현 기자

2009 불교문화엑스포 포살관회

The Buddhism Culture Expo 2009
PAL GWAN HOE
www.bba.or.kr

2009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참여업체

※ 온라인 쇼핑 및 입점 서비스 제공

팔관회 무료 입장권은 www.bba.or.kr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행사일시
2009. 12. 3(목) ~ 6(일) (4일간)

행사장소
부산 해운대 벅스코(BEXCO) 3홀(전관)

- 입장료 : 대인 3,000원 / 소인 2,000원
- 무료입장 : 무료입장권 소지자 및 홈페이지 무료입장권 출력자
- 특별무료입장 : 팔관회 개막식이 열리는 12월 3일(목) 정오 12시까지 입장객과 팔관회 법회가 열리는 12월 4일(금) 오후 2시까지 입장객은 특별무료 입장시켜드립니다.
- 경품입장권 : 매표창구에서 유료 혹은 무료입장권을 제시하시면 경품입장권으로 교환해드리며, 12월 6일(일) 폐막식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드립니다.

문의전화 051)867.0501~3 www.bba.or.kr · 팩스 : 051) 867.0504 · 주소 : (우)614-856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00호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주관 : 불교신문사

주관방송 : 불교TV

협력방송 : BBS 부산불교방송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 부산광역시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원